



##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최대의 축산박람회

— 식품 안전성과 가공산업에 초점 —

오는 3월 7~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VIV Asia 2007을 알리기 위한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이 유럽 및 동남아 15개 국가에서 37명의 저널리스트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첫날 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태국 방콕국제무역전시장(BITEC)을 둘러보고 VIV관계자를 비롯하여 박람회 전시 담당자, 태국 농업 정부관계자, 세계가금학회 태국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VIV Asia 2007 준비상황과 아시아태평양가금학회 행사 개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2일째부터는 태국에 있는 양계·양돈 농장 및 도계·도축장, 약품회사 등을 방문하여 태국의 양계산업 현황을 견학하였다. 이번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은 기자단 뿐만 아니라 VIV International 프로젝트 매니저인 Ruwan Berculo씨와 고문 Richard de Boer씨, 태국 NCC의 이사 Ladda Mongkolchaivivat 씨를 비롯해 10여명의 실무진도 함께 동행하였다.

태국은 지난 2004~5년 고병원성SI의 여파로 해외 닭고기와 계란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양계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 등으로 1년이 넘게 SI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이다.



◀ 박람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실무진들(좌부터 VIV International 프로젝트 매니저인 Ruwan Berculo씨, 태국 NCC의 이사 Ladda Mongkolchaivat, NCC 프로젝트 매니저 Rungpetch Chitanuwat (Rose) 씨)

### VIV Asia 2007 금년 3월 태국에서

VIV Asia 2007 박람회는 지난 1993년도에 처음 시작된 이래 격년제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축산 박람회로 거듭나고 있다. 8회째를 맞이하는 VIV Asia 2007은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에 있는 방콕국제무역전시장(BITEC)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2,500m<sup>2</sup> (3,750평)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네덜란드의 VNU Exhibition Europe과 태국의 N.C.C Exhibition Organizer Co에서 주최사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문제는 물론 식품 가공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질 예정이다.

2005년에는 전 세계에서 470여개 업체가 출품하였으며 22,650명의 전문 바이어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람회에 참여했던 관람객의 75%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007년도에 다시 찾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VIV Asia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70여 참가업체들은 태국업체 20%, 해외출품업체 80%로 나타났으며, 전문바이어들중 양계산업(37.1%)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고, 육종,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전체 산업중에서 동물약품(46.7%)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 생산성과 관련하여 동물약품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이후 각 분야에 10억유로(약 1조2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식품안전과 가공분야에 초점

이번 박람회는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식품안전과 육류가공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식품회사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과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태국 축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행사가 열리는 BITEC은 방콕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숙박시설도 많아 이용에



▲VIV Asia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 장면(VIV 관계자 및 정부, 학계 등에서 참석하였다).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15개국 37명의 저널리스트 및 실무진들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설립된 전시시설은 4,700대의 주차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부지가 272,000m<sup>2</sup>이며, 총 전시면적은 50,400m<sup>2</sup>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16개의 주회의실(3,000m<sup>3</sup>) 및 2,5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VIV International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르완(RUWAN)씨는 2007년 박람회는 2005년보다 확대된 면적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사료에서 가공분야까지 전세계를 리드하는 400여 업체가 훨씬 넘게 참가하고 방문객들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VIV박람회와 연계하여 아태가금학회가 3월 5~6일 태국 방콕의 스위트 호텔에서 500~600여명의 석학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가금학회 태국지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양계사료, 영양, 가공, 환경, 건강관리, 유전공학 등 양계업계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와 과학논문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미리보는 VIV Asia 박람회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은 VIV Asia를 각국에 알리고 많은 업체와 바이어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로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보 예산만 해도 약 8천여만원이 사용되어지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축산박람회(KISTOCK)에도 지난해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태국 축산업의 현황을 알림으로써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수출홍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첫날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VIV관계자를 비롯하여 박람회 전시 담당자, 태국 농업 정부관계자, 세계가금학회 태국 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VIV Asia 2007과 아시아 태평양 축산업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AI에 대한 태국정부의 방역활동은 물론 아태가금학회 행사 전시회 행사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BITEC전시장에서 업체들과의 만남은 VIV Asia 박람회를 미리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첫날 오후 전시 참여업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동물약품, 사료첨가, 기자재 등 이날 참가한 총 22개 업체들 대부분은 항생제를 대체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내년 박람회에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항생제 잔류량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진단 키트 등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국내 바이어 및 축산농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약품업체에서 15개업체(210m<sup>2</sup>)와 기자재 12개업체(185m<sup>2</sup>) 등 총 27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에 있다.

둘째날부터 개최된 태국의 양계산업 시찰은 자국내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양계, 양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 2007년 이후 VIV 행사 일정

VIV Asia 2007이외에 금년 이후 개최되는 VIV박람회는 2007년에 러시아, 터키, 인도에서 개최되고 2008년에는 VIV 유럽 박람회가 준비중에 있다.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VIV Russia 2007은 모스크바 크로커스시 전시장에서 오는 2007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GDP 6.5%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 생산 및 가공업계도 2005년도에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전세계 23개국에서 200여개의 전시업체가 출품하였으며, 41개국으로부터 4,620명의 전문바이어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IV 터키는 오는 6월 28~30일 이스탄불에서, VIV 인도는 오는 11월 1~3일 뉴델리에서, VIV 유럽은 2008년 5월 20~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다.

(태국 양계산업 시찰 및 현황은 다음호에 계속)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